



La Bohè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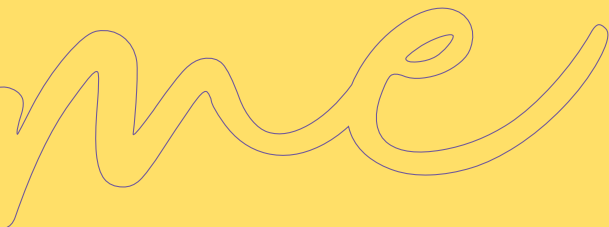
대구 - 광주 달빛동맹 교류 공연
G.푸치니 **라 보엠**



Perché son io poeta, essa la poesia.

나는 시인이고, 그녀는 시 그 자체이다.

La
Belle



인사말 Greetings	<u>04</u>
작곡가 소개 Composer	<u>06</u>
줄거리 소개 Synopsis	<u>08</u>
작품 소개 Exposition of <La Bohème>	<u>10</u>
연출노트 Director's Note	<u>12</u>
지휘노트 Conductor's Note	<u>14</u>
무대디자인 Scenic Design	<u>16</u>
의상디자인 Costume Design	<u>17</u>
주요제작진 Creative Team	<u>18</u>
출연진 및 출연단체 Cast	<u>20</u>
제작진 Production Staff	<u>31</u>



존경하는 관객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아 대구오페라하우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과 기대가 가득한 새해의 문턱에서, 푸치니의 시그니처 오페라 <라 보엠>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무대는 광주시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특별한 공연으로, 지역과 지역을 잇는 달빛동맹 문화예술 교류의 참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 도시가 쌓아온 예술적 역량과 개성이 오페라라는 공통의 언어로 만나 더 깊고 풍성한 감동을 전해드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극장으로서 2026년에도 3월 <나비부인>, 4월 <리골레토> 등 관객 여러분과 더 가까이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만남 또한 그 여정의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새해의 시작을 장식하는 이 공연이 여러분의 한 해에 아름다운 울림과 감동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을 비롯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 1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정갑균**



"겨울의 흑한을 녹이는 낭만, 대구에서 피어나는 보헤미안의 사랑"

오페라를 사랑하는 애호가와 대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겨울, 대한민국 오페라의 메카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전석 매진의 신화 광주시립오페라단의 푸치니 <라 보엠>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프랑스 작가 앙리 무르제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라 보엠>은 크리스마스이브에 시작된 로돌포와 미미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탄탄한 음악과 스토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예술 교류를 넘어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이 맺은 소중한 문화적 결실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예술의 온기로 서로를 보듬는 이번 무대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협력을 이끄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달빛동맹'을 기획하고 대구오페라하우스를 세계적 문화공간으로 만드신 정갑균 관장님과, 이번 공연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가장 감동적인 무대 <라 보엠>,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최철**



Giacomo Puccini

자코모 푸치니
1858-1924

자코모 푸치니는 토스카나 지역 루카에서 음악가 가문의 5대손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미사 반주와 성가대 지휘를 맡으며 자연스럽게 음악적 재능을 드러냈다.

18세에 피사에서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접한 뒤, 그는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가 되겠다는 확고한 꿈을 품었다.

푸치니는 밀라노 음악원에 입학한 뒤 오르간과 피아노 연주를 통해 유학 자금을 모으며 작곡을 공부했다. 그러나 생활은 궁핍했고, 여러 번 학비를 걱정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꿈꾸는 '진짜 오페라'를 향한 끈기를 잃지 않았다.

푸치니 이름을 세상에 알린 작품은 바로 <라 보엠>(1896)이다.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보헤미안의 생활 정경」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파리 뒷골목에서 예술과 사랑을 좇는 젊은 보헤미안들의 삶을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정서로 담아냈다. 특히 미미와 로돌포의 사랑 이야기는 계절의 흐름과 함께 섬세하게 그려져, 초연 당시부터 큰 감동을 주었다.

푸치니는 일상의 감정과 서정성을 음악으로 생생히 표현하는 데 탁월했으며, 이를 통해 오페라 무대를 새로운 사실주의 감각으로 이끌었다. <라 보엠>은 비극적이지만 과장되지 않고, 섬세한 선율과 정교한 관현악으로 인물들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따라간다. 이는 그가 훗날 <토스카>(1900), <나비부인>(1904) 등 걸작으로 이어가며 베르디 이후 이탈리아 오페라를 이끈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푸치니는 작품 속에서 늘 인간의 사랑, 행복, 슬픔 같은 보편적 감정의 진실을 탐구했다. 특히 <라 보엠>은 가난하고 불완전한 삶일지라도 사랑과 우정 속에서 순간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의 대표적 걸작으로 남아 있다.

1막

1830년대 파리 라탱 지구의 다락방. 가난한 화가 마르첼로와 시인 로돌포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 로돌포의 원고를 찢어 난로에 넣는다.

철학자 콜리네와 음악가 쇼나르가 돈과 음식, 장작을 들고 돌아오자, 네 친구는 뜻밖의 풍요를 자축하며 웃음을 나눈다. 잠시 후 밀린 집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베누아를 농락해 내쫓은 그들은 파리의 명소 카페 모무스로 향한다.

로돌포는 글을 마무리하기 위해 홀로 남는다. 그때 이웃 미미가 촛불이 꺼졌다며 찾아온다. 그녀는 현기증으로 쓰러지고, 로돌포는 와인을 건네며 부축한다. 어둠 속에서 열쇠를 찾다 서로의 손이 닿은 순간, 두 사람은 자신들의 꿈과 외로움을 이야기하며 사랑에 빠진다.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에 이끌려, 로돌포와 미미는 팔짱을 끼고 카페로 향한다.

2막

상인과 군중으로 붐비는 카페 모무스 거리. 로돌포는 미미에게 모자를 선물하고 친구들에게 그녀를 소개한다. 그때 마르첼로의 옛 연인 무제타가 부유한 연인 알친도로와 함께 나타나, 질투와 허영으로 가득한 왈츠를 부르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무제타는 알친도로를 따돌리고 마르첼로의 품으로 돌아가고, 식사비는 그에게 떠넘긴 채 떠난다. 거리에는 군악대의 행진이 이어지고, 젊은 예술가들의 웃음이 크리스마스의 밤을 물들인다.



3막

눈 내리는 새벽, 파리 외곽의 성문 근처. 미미는 로돌포의 질투로 괴로워하며 마르첼로를 찾아온다. 그녀는 이별을 결심했지만, 숨어 있던 로돌포의 대화를 통해 그의 진심을 듣게 된다. 그는 미미의 병이 깊어지고, 가난 속에서 그녀를 돌볼 수 없다는 절망 때문에 떠나려 했던 것이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봄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함께하기로 약속한다. 그 옆에서 마르첼로와 무제타는 다투며 또 한 번 헤어진다.

4막

다락방으로 돌아온 로돌포와 마르첼로는 각자의 상처를 노래하며 외로움을 달랜다. 콜리네와 쇼나르가 들어와 소박한 식탁을 차리고 웃음이 번지는 순간, 무제타가 급히 들어와 병든 미미가 밖에 있다고 전한다. 무제타는 귀걸이를 팔아 약을 사오게 하고, 콜리네는 외투를 전당포에 맡긴다. 두 사람은 첫 만남을 회상하며 짧지만 따뜻한 사랑의 기억을 나누지만, 미미는 이내 평화로운 미소와 함께 숨을 거둔다. 로돌포는 그녀를 끌어안은 채 절규한다. 그들의 가난하고도 찬란했던 사랑, 그 겨울의 마지막 숨결이 다락방에 남는다.



박 인 욱

전남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자코모 푸치니의 라 보엠



푸치니의 라 보엠
1896년 공연 포스터

연말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인기 있는 공연은 발레 <호두까기 인형>과 오페라 <라 보엠>이다. 이는 두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 크리스마스이며 또한 음악적으로도 매우 아름답고 완성도 높기 때문이다.

오페라 <라 보엠>은 푸치니가 앙리 뒤르제의 「보헤미안의 생활 정경」이라는 소설을 토대로 각색하고 작곡하여 1896년 초연되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1830년경에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문화, 예술적으로 부흥하던 시기였다.

예술가들이 당시 중심지였던 파리로 성공을 쫓아 몰려들었고 오페라의 주인공들이 시인 로돌포, 화가 마르첼로, 음악가 쇼나르, 철학자 콜리네 역시 그러한 예술가 지망생들이었다.

이들은 비록 돈이 없어서 파리 라탱 지구의 한 다락방-한국의 반지하에서 살았고 그마저 월세도 밀리고 굶주린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자유와 꿈과 사랑을 동경하는 젊은이들이었다.

1막 은 그들의 다락방에서 시인 로돌포가 미미를 만나게 되고 둘은 '그대의 찬 손, Che gelida manina' 과 '내 이름은 미미, Mi chiamano Mimi'라는 유명한 아리아를 이어서 '사랑스러운 아가씨, O soave fanciulla'라는 감미로운 2중창을 부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

2막에서는 마르첼로의 옛 애인이었던 무제타가 돈 많은 늙은 부자 알친도로와 함께 모무스 카페에 등장하게 되고 마르첼로가 계속 무관심하자 '내가 거리를 걸으면, Quando m'en vo'를 요염하게 부른다. 그가 유혹에 흔들리자 꾀를 내어서 알친도로를 쫓아버리고 6명의 젊은이들은 의기투합하면서 막이 끝난다.

3막의 배경은 무제타와 마르첼로가 일하는 세관 부근의 술집으로 두 커플들 간의 갈등과 이별이 2중창과 3중창, 미미의 '행복했던 시절이여 안녕, Addio, donde lieta uscì'이라는 아리아를 통해서 묘사되고 푸치니의 호소력이 서정적으로 잘 표현된 막이다.

4막에서는 로돌포와 마르첼로가 옛 애인을 잊지 못하며 2중창을 부르고 여주인공 미미는 폐병에 걸려 죽기 전 무제타의 도움으로 다시 찾아오게 된다. 미미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콜리네는 아리아 '안녕 늙은 외투여, Vecchia zimarra senti'를 부르고 자신의 오래된 외투를 일행들과 함께 팔러 나간다. 둘만 남게 되고 미미는 마지막 아리아 '모두 갔나요? Sono andati?'를 온 힘을 다해 부른 뒤 잠들게 된다.

이 당시의 오페라는 이탈리아의 사실주의 문학에서 출발한 베리스모 오페라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푸치니는 이를 <라 보엠>에 훌륭하게 접목시켰다.

이전의 신화, 고대 역사, 왕족과 귀족의 영웅적 이야기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반한 서민들의 삶과 사랑, 감정이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관현악법적으로 주인공들의 감정 상태와 심리적인 부분을 유기적으로 잘 표현하였고 아리아에서는 사랑과 감정을 중창에서는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을 완벽하게 배치하였다.

무엇보다 당시 푸치니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목에서처럼 보헤미안들의 자유와 순수함, 사랑을 동경하고 그 가치를 표현하고자 한 점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라 보엠 – 푸치니의 예술혼이 피어난 현실 반영 리얼리즘

오페라 <라 보엠>은 푸치니의 작품들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명작이다. 세 번째 작품인 <라 보엠>의 성공으로 그는 비로소 대중과 평단의 주목을 받으며 명성을 얻었다. 이후 <토스카>, <나비부인>, <투란도트>로 이어지는 걸작들을 통해 푸치니는 이탈리아 오페라 리얼리즘의 대표 작곡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에게도 분명 무명 시절이 있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밀라노에서 공부하던 젊은 시절, 푸치니는 가난한 예술가로서의 고단한 삶을 견뎌냈다. 그 시절의 경험은 훗날 라 보엠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이 작품은 마치 그의 자전적 초상처럼 느껴진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던 젊은 푸치니아말로 보헤미안의 정신 그 자체였다.

앙리 뮈르제(Henri Murger)의 연재소설 「보헤미안의 생활 정경」은 푸치니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시인, 화가, 철학자, 음악가 등 젊은 예술가들의 일상과 우정, 사랑, 가난, 자유로운 영혼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당시 파리 중산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자유로웠고, 현실 속에서도 예술을 향한 열망을 잃지 않았다. ‘낭만적 가난’이라는 미학을 만들어낸 이 소설은 예술가들의 세계를 동경하게 했고, 푸치니는 그 속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괴짜 4인방의 우정, 사랑과 예술의 교차점

<라 보엠>의 중심에는 네 명의 예술가가 있다. 시인 로돌포, 화가 마르첼로, 철학자 콜리네, 음악가 쇼나르. 그들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메워주는 거울 같은 존재들이다.

이들이 머무는 공간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예술의 실험실이자 창작의 무대, 그리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정신의 상징이다. 그들의 공동체는 “함께 가난했지만 함께 성장한 세대”의 초상이며, 예술가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의 열정과 사랑, 좌절과 이별은 결국 우리 모두의 청춘과 예술의 이야기를 대변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인 로돌포와 그의 뮤즈 미미가 있다.

백옥 같은 피부와 차가운 손, 부드럽지만 연약한 그녀의 존재는 로돌포에게 예술의 영감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사랑의 열정이 깊어질수록 현실은 냉혹해진다.

병든 미미를 바라보며 로돌포는 두렵고 낯선 선택의 기로에 선다. 사랑을 위해 예술을 포기할 수도, 예술을 위해 사랑을 버릴 수도 없는 젊은 예술가의 딜레마.

결국 미미의 죽음 앞에서 참아왔던 감정의 응축이 폭발한다. “Mimi!” 그 짧은 외침 속에는 예술가의 죄책감, 사랑의 절망, 인간의 나약함이 뒤섞여 터져 나온다. 그것은 비극의 절정이자, 현실 속에서도 끝내 예술의 길을 선택한 로돌포의 내면을 대변하는 울부짖음이었다.

보보스, 현대의 보헤미안이어

<라 보엠>은 결국 서툴지만 진심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청춘의 초상이다.

이상만으로는 버텨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자유로운 예술을 지켜내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부와 성공을 향해 풍요로운 현실만을 쫓는 이 사회에서, 예술의 낭만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젊은 예술가들. 현대의 보헤미안이라 불리는 ‘보보스(Bobos)’들에게 <라 보엠>은 여전히 뜨겁게 말을 건넨다.

“보보스들이여, 새로운 예술의 패러다임을 위해 건배를!”

2026. 1

연출 표현진



라 보엠...

언어, 생각, 색채, 그리고... 연극!

친애하는 대구의 관객 여러분!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어떤 것도 거짓은 아닌 이 놀라운 마법 상자-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대표하는 모든 예술가들이 함께하여 소개가 필요 없는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천재성을 함께 기릴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라 보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주 공연되는 오페라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법한,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즐겁고 가벼운 청춘의 삶 속에 깃든 유쾌함과 자유로움이, 결국은 푸치니 특유의 비극적 정점으로 향합니다.

이 작품을 연주하기 전마다 다시 악보를 펼쳐보면, 이전에는 놓쳤던 작은 디테일들이 새삼 눈에 들어옵니다. 혹은 이해하지 못했던 지시어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기도 하지요.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작품의 본질에 다다르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라 보엠>은 그만큼 독특하고 특별한 오페라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보엠은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엠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화가가 정확한 색을 찾아내듯, 저는 늘 리듬과 숨결, 감정의 ‘색’을 찾아 헤맵니다. 그것은 멈출 수 없는, 끝없는 탐구의 여정입니다.

이 모든 음악적 요소들이 향하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푸치니, 그리고 특히 <라 보엠>은 ‘순수한 연극’ 그 자체라는 것. 작품 속 드라마가 언제나 저에게 지시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어떤 알레그로(빠른 템포)를, 저 장면에서는 어떤 아다지오(느린 템포)를 선택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극적인 순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객의 존재는 예술가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이 공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르첼로 모타델리

2026. 1

지휘 **마르첼로 모타델리**

1막
ACT 1



2막
ACT 2



3막
ACT 3



4막
ACT 4





미미



로돌포



마르첼로



무제타



쇼나르



콜리네



알친도로



파피놀



예술감독 최철

Artistic Director Cheul Choi

- 조선대학교 음악교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한세대 음악학 박사(D.M.A), 조선대 문화학 박사(Ph.D)
- 이탈리아 마스카니(P. Mascagni) 국립음악원 졸업
- 이탈리아 A.R.A.M., A.I.ART, A.I.D.M. 아카데미 오페라 연출, 오페라 대본 연구, 합창지휘, 성악 교수법 디플로마
- 미국 브루클린 콘서바토리(Brooklyn Conservatory of Music) 수학
- ACC 시민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오페라 및 공연예술분야, 축제 관련 예술감독 역임
- 저서 최철의 문화살롱, 오페라 관련 논문을 비롯한 언론사에 다수 기획 시리즈 연재
- 이탈리아 국제 콩쿠르를 비롯해 성악과 문화 관련 국내외 다수 수상
- 국내외 38회 독창회를 비롯한 여러 편의 오페라 출연과 연출
- 국내외 공연예술, 문화정책 관련 다수 기관 임원 및 자문 활동
- 현)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연출 표현진

Stage Director Hyunjin Pyo

- 영남대학교 성악과 졸업
- 토리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공연예술과 최고연주자과정 최고점수 졸업
- 국립오페라단 상근단원 역임
- 국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 서울시오페라단, 대전예술의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 다수 연출
- 주요작품 <라 트라비아타>, <가면무도회>, <운명의 힘>, <리골레토>, <팔스타프>, <투란도트>, <라 보엠>, <토스카>,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박쥐>, <세빌리아의 이발사>, <청교도>, <로미오와 줄리엣>, <루살카>, <지크프리트의 검>, <인형의 신전>, <춘향>, <봄봄>, <동승>, <레드 슈즈>, <달이 물로 걸어오듯>, <264, 그 한 개의 별> 외 다수 연출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지휘 마르첼로 모타델리

Conductor Marcello Mottadelli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대학 졸업
- 이탈리아 파르마 토스카니니 재단에서 로마노 간돌피의 부지휘자로 활동
- 스위스 베른극장, 독일 칼스루에극장, 헝가리 부다페스트, 미국 콜로라도 오페라, 러시아 볼쇼이극장, 체코, 덴마크 국립오페라극장 등에서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박쥐>, <일 트로바토레>, <마술피리>, <마르타>, <리골레토>,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팔리아치>, <나비부인>, <라 보엠> 등 지휘
- 2008~2011 카이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역임, 2016~2017 부쿠레슈티 국립오페라극장 예술감독 역임, 2018~2021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국립극장 감독 역임
- 현) 사아레마 오페라 페스티벌 조정위원



미미 Sop. 홍주영

Mimì Sop. Juyoung Hong

- 추계예술대학교 성악과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오페라과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 오페라 <코지 판 투테>, <돈 조반니>, <피가로의 결혼>, <라 트라비아타>, <라 보엠>, <진주조개잡이>, <박쥐>, <오텔로>,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등 주역 출연
- 현) 추계예술대학교 성악과 교수



미미 Sop. 김희정

Mimì Sop. Heejeung Kim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성악전공 졸업
- 이탈리아 코모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시립음악원 보컬코치과 졸업
- 이탈리아 도니제티 아카데미 뮤지컬·합창지휘 과정 수료
- 2025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스튜디오 수료
- 미국 East Coast 국제 콩쿨 3위, 이탈리아 Giovani Talenti per la Lirica 국제 콩쿨 2위
- 이탈리아 코모 Sociale 국립극장 <라 트라비아타>, <투란도트>, <이탈리아의 터키인> 프레젠테이션 공연
- 국립오페라단, 광주시립오페라단 및 국내 단체에서 <라 트라비아타>, <세빌리아의 이발사>, <마술피리> 공연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사야오페라어워즈' 신인상 수상
- 현) 전문 가수로 활발한 활동 중



로돌포 Ten. 김요한

Rodolfo Ten. Yohan Kim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졸업
- 독일 하노버 국립음악대학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스웨덴 빌헬름 스탄해머 국제 콩쿨 1위, 비엔나 국제 콩쿨 1등, 이탈리아 비오티 국제 콩쿨 2위, 이탈리아 판도나이 국제 콩쿨 2위, 그리스 마리아 칼라스 국제 콩쿨 3위, 부세토 베르디 콩쿨, 팔츠부르크 그란디보치 콩쿨, 마그다올리베로 콩쿨 등 다수 콩쿨 입상
- 국립오페라단, 독일 오스나브뤽 극장, 힐데스하임 극장, 뉘른베르크 극장, 볼프스부르크 극장, 귀터슬로 극장 등 다수 극장에서 오페라 주역 출연
- 오페라 <라 보엠>, <카르멘>, <마술피리>,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토스카> 등 유럽 유수의 극장에서 약 300여회 주역 출연
- 현) 유럽 오페라 주역 활동, 가톨릭대 겸임교수,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출강



로돌포 Ten. 강동명

Rodolfo Ten. Dongmyung Kang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오페라 <라 보엠>, <세빌리아의 이발사>, <세미라미데>, <살로메>, <잔니 스키키>, <박쥐>, <신데렐라>, <돈 조반니>, <돈 파스칼레>, <마술피리>, <사랑의 묘약>,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코지 판 투테> 등 주역 출연
- 로시니 <작은 장엄 미사>,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로시니 <스타바트 마테르>, 헨델 <메시아>, 하이든 <천지창조>,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라미레즈 <미사 크리올라> 솔리스트
- 현) 전문 가수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 중



마르첼로 Bar. 공병우

Marcello Bar. Paul Kong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프랑스 마르세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베르테르>, <진주조개잡이>, <라 보엠>, <돈 조반니>, <에브게니 오네긴>, <돈 카를로>, <마술피리>, <사랑의 묘약> 등 주역 출연
- 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마르첼로 Bar. 서진호

Marcello Bar. Jinho Seo

- 서울시립대학교 음악학과 성악전공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오페라과 졸업
-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대학 오페라과 석사 졸업
-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수석졸업
- 오페라 <라 보엠>, <나부코>, <돈 조반니>,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잔니 스키키>, 창작오페라 <윙키> 등 주역 출연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출강, 전문 가수로 활발한 활동 중



무제타 Sop. 윤현정

Musetta Sop. Hyunjung Yoon

- 선화예술 중·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 리트와 오라토리오과 졸업
-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립음대 오페라 석사 졸업
- 세종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지휘 석사 졸업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라 보엠>, <투란도트>,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코지 판 투테>, <마술피리>, <잔니 스키키> 등 주역 출연
- 전) 전남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강사 역임
- 현) 이화여자대학교 출강, 전문 가수로 활발한 활동 중



무제타 Sop. 김영은

Musetta Sop. Youngeun Kim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성악전공 졸업
-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대 석사 최고점 졸업
- 캄머쟁어린 소프라노 Dorothea Röschmann, Arena di Verona 극장장 Cecilia Gasdia 마스터클래스 수료
-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의 묘약> 등 다수 출연
- 현) 전문 가수로 활발한 활동 중



쇼나르 Bar. 안 환

Schaunard Bar. Hwan An

- 가톨릭대학교 음악과 성악전공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 스칼라 아카데미 수료
- 밀라노 Ponte 국제 콩쿠르 1위, Nicolaj Chiaurov 국제 콩쿠르 3위, San colombano 국제 콩쿠르 2위,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3위
- 이탈리아 스칼라 극장 <리골레토>, <잔니 스키키>, <죽음의 도시>,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서울시오페라단 <라 보엠>, 성남문화재단 <나비부인>, 예술의전당 창작 오페라 <The Rising World-물의 정령> 등 주·조역 출연
- 현) 가톨릭대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출강, 전문 가수로 활발한 활동 중



쇼나르 Bar. 김희열

Schaunard Bar. Huiyeol Kim

-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독일 브레멘 예술대학 성악 Master 졸업
- Krisztina Laki 국제 성악마스터클래스 수료
- 독일 브레멘 오페라하우스 단원 역임
- 독일 함부르크 Snger Akademie 솔리스트 역임
- 오페라 <돈 조반니>, <헨젤과 그레텔>,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버섯피자>, <피가로의 결혼>, <토스카>, <라 보엠>, <마술피리>, <잔니 스키키>, <세빌리아의 이발사>, <운명의 힘>, <더 텔레폰>, <아드리애나 르쿠브뢰르>, <마탄의 사수>,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루크레시아의 능욕>, <춘향전>, 창작오페라 <놀부야>, <Mr. 이춘풍> 등 주·조역으로 출연
- 현) 전문 가수로 활발한 활동 중



콜리네 Bass 박기옥

Colline Bass Kiok Park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 푸치니 아카데미(토레텔라고) 수료 및 수상
- 코르시코 시립음악원 졸업
- 오페라 <돈 카를로>,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토스카>, <세빌리아의 이발사>, <마술피리>, <돈 조반니>, <코지 판 투테>, <나비부인>, <나부코>, <라 보엠>, <맥베드> 등 다수의 공연 출연
- 현) 전문 가수로 활발한 활동 중



콜리네 Bass 최승필

Colline Bass Seungpil Choi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 이탈리아 토리노 베르디 국립음대 석사
- 동양인 최초 Arena di Verona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플라시도 도밍고와 콘서트 및 오페라 공연
- Sferisterio 마체라타, 푸치니아외대극장, San Carlo 나폴리, 토리노국립극장, 발렌시아 Reine 소피아, 제노바국립극장, 파르마 극장, 베르디 페스티벌 등 유수 극장서 공연
-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리골레토>, <나부코>, <잔니 스키키>, <투란도트>, <라 보엠>, <아이다>, <돈 카를로>, <오텔로>, <일 트로바토레>, <시몬 보카네그라>, <몽유병의 여인>, <탄호이저>, <스페이드의 여왕>, <마술피리>, <가면무도회>, <토스카> 외 다수의 오라토리오 및 콘서트 출연
- 베르디 국제 콩클 입상 및 다수의 국제 콩클 최우수상 수상
- 현) 유럽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 가수로 활발히 활동 중



베누아 Bass 임해철

Benoît Bass Heacheul Lim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졸업
- 동아콩쿠르 1등 수상, 이탈리아 Verdi 국제성악콩쿠르 심사위원 역임
- 광주오페라단 단장, 광주시립오페라단 창단추진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역임
- 옥조근정훈장, 한국음악협회 공로상,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대상 수상
- 오페라 <라 보엠>, <돈 카를로>, <피가로의 결혼>, <사랑의 묘약>, <아이다>, <카르멘>, <잔니 스키키>, <호프만의 이야기>, <마농 레스코>, <맥베드>, <라 트라비아타>, <전쟁과 평화>, <심청전>, <이순신>, <산불>, <초인종>, <아라리 공주>, <류관순>, <음악이 먼저 말은 그다음에>, <고구려의 불꽃> 등 다수 출연
- 현)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명예교수, 광주오페라단 공동대표



알친도로 Bass 박병국

Alcindoro Bass Byungkuk Park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스튜디오 수료
-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성악과 및 리트&오라토리오과 졸업
- 이탈리아 피렌체 아카데미 합창지휘 졸업
- 독일 함부르크 국립극장 단원 역임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피가로의 결혼>, <세빌리아의 이발사>, <잔니 스키키>, <초인종>, <텔레폰>, <돈 조반니> 등 주역 출연
- 피렌체 세계합창 콩쿠르 최고 지휘자 부문 금메달, 강릉세계합창올림픽 금메달, 스페인 <싱포폴드> 세계합창대회 금메달
- 광주광역시장상 수상 (제1567호)
- 전남대학교, 광신대학교, 동강대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 전남예술고등학교, 광주예술영재교육원 강사 역임
- 현)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광주광역시 동구합창단 지휘자, 광주광역시 여협합창단 지휘자, 영광군 시니어합창단 지휘자, 아미쿠스 중창단 지휘자



파피뇰 Ten. 이요한

Parpignol Ten. Yohan Lee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정기연주회 출연
- 오페라 <카르멘>, <마술피리>, <사랑의 묘약> 등 다수 오페라 출연
- 현) 광주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

디오오케스트라

Dio Orchestra

디오 오케스트라(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는 오페라와 클래식の大중화에 뜻을 함께하는 젊은 음악인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이며,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상주단체이다.

대구오페라하우스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해외파 출신 연주자와 대구 지역 음악대학을 졸업한 신진 예술가들을 균형 있게 확보함으로써 역량 높은 연주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예술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기존의 음악 단체와는 차별화된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로 창단되어 <아이디>, <사랑의 묘약>, <심청>, <엘렉트라> 등, 고전에서부터 현대 창작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오페라 연주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80회 이상의 크고 작은 무대를 소화하며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오케스트라'로 평가받고 있다.

Violin 1 박은지 김현비 이소희 장지은 류가현 정수현 노선균 Violin 2 이지애 박민서 장유진 장혜진 장혜지 양수빈
Viola 박선영 김예송 김효원 조민지 조재형 Cello 강윤선 박소현 김형기 설예은 C. Bass 함소현 김지정
Flute 1 백선미 Flute 2 이한나 Oboe 1 배민주 Oboe 2 김재운 Clarinet 1 김민수 Clarinet 2 전다양
B. Clarinet 윤성훈 Bassoon 1 조혜연 Bassoon 2 조윤주 Horn 1 양삼영 Horn 2 김태우 Horn 3 문혜란
Horn 4 전서현 Trumpet 1 전성화 Trumpet 2 이혜연 Trumpet 3 박규상 Trombone 1 김진욱
Trombone 2 이민정 Trombone 3 박준석 Timpani 권혜진 Percussion 이희정 허동훈 Harp 이은하
Banda ottavino 김민주 Banda ottavino 박서현 Banda trumpet 서민구 Banda trumpet 김진희
Banda snare 이안나 Banda snare 배혜주 기획실장 이은배 공연담당 정은영 악보담당 박상은



광주시립합창단

Gwangju City Choir

광주시민을 향한 '진정성 깃든 하모니'

1976년 시민합창단으로 발족 후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예술 단체로 광주시민들께 하모니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이 되고자 정진해 나가고 있다.

1976년 장신덕 교수의 시민합창단으로 태동, 창단 49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합창단이다. 그동안 한국 합창계의 선구자적 역할을 맡아온 석복룡, 김연술, 김동현, 유병무, 구천, 임한귀, 김인재 등의 지휘자와 함께 200회가 넘는 정기연주회를 비롯, 수많은 공연에서 완성도 높은 연주회를 선보이며 광주시민들과 클래식 애호가들 그리고 한국 합창 음악계로부터 호평을 받아온 광주시립합창단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제주, 전주 등 타 시도와의 문화교류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해외 연주회를 통해 합창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의 대외 홍보와 국제문화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광주시립합창단은 현 상임지휘자 임창은과 함께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수준 높은 레퍼토리 확보와 자연스러우면서도 블렌딩이 잘되는 발성 및 생동감 있는 합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매 연주회마다 완성도 높은 공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언론 계와 클래식 애호가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지역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합창을 통한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찾아가는 공연을 수시로 운영함으로써 클래식 공연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광주시립합창단이 일익을 담당하고자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상임지휘자 임창은

부지휘자 이준

반주자 권현 임리라

소프라노 ● 장미화 ● 정혜진 ● 장은지 ○ 김지나 ○ 표현진 이명진 김은혜 윤은주 안소현 정혜원 정지희 * 최수현

알토 ● 김혜진 ● 지영남 ○ 오지영 박민희 한여옥 박애리 백미화 * 송지유 * 황지혜 * 박소정

테너 ● 정기주 ● 유정석 ○ 정광진 ○ 우성식 오승진 홍명식 정양훈 김원태 윤승중 * 이요한 * 김우정 * 허지성

베이스 ● 손승범 ● 윤찬성 ○ 김대성 ○ 김창식 홍태민 조정구 박광석 염종호 이준용 * 이준희

사무국 운영실장 정성연 악보 최승아 기획·홍보 김동훈 이정호

● 수석 ○ 차석 * 비상임



광주CBS
소년소녀합창단
Gwangju CBS
Children's Choir

1985년에 창단된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은 33회의 정기연주회와 해외초청연주회 등 800여 회가 넘는 다양한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찬양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창작 오페라 <다윗>과 합창뮤지컬 <영원한 약속> 등을 통하여 커다란 은혜와 감동을 주었으며, 합창단의 음악적 수준을 향상시켜 기독교 청소년 문화부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오페라 <투란도트>와 <토스카>에 출연하며 광주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내 대회인 대교 코러스코리아대회에서 금상을, 중국연태봉래 동아시아태평양 국제합창콩쿨대회에서 그랑프리와 단체우승상 및 지휘자상을 수상하여 실력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함께 노래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합창을 통해 함양하고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합창단이 되고자 한다.

단장	송희호
지휘자	이현숙
반주자	송희주
발성코치	박혜민
단무장	민춘심
단원	주지우 김서준 심하은 김태연 조아인 박소희 김서진 유시현 김은성 조슬하 조주하 김주영



극단 까치놀

Kkachinol
Theater Company

까치놀 “석양이 질 무렵 수평선 저 멀리 백두파에 비친 자줏빛 노을“

지역 예술의 산실로, 작지만 강한 문화적 거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극단 까치놀은 과거를 기리면서 미래를 담대하게 전망하고 연극의 마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연극이라는 장르가 대중적으로 낯설었던 시기, 소규모 관객을 대상으로 소극장 무대에서 시작해 지역민과 소통하며 꾸준히 성장했다. 척박한 창작 환경 속에서 창단하여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40년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극단 까치놀은 순수연극의 대중화, 프로듀서 시스템 구축, 레퍼토리 작품 발굴,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현대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연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대표작

- 가면극 ‘변두리극장’ (광주 대표브랜드 상품 발굴 공연 선정, 2011)
- 연극 ‘꿈꾸는 해바라기’ (전국연극제 은상 수상, 2012)
- 연극 ‘동화의 관’ (삿포로연극제 작품상 수상, 2016)
- 연극 ‘천문’ (K-Theater Awards 베스트작품상 수상, 2022)



대표 및 연가지도 이영민

- 극단 까치놀 대표 및 연출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 연극 <천문> 연출 (제60회 K-Theater Awards 작품상 수상)
- 연극 <꽃머느리>, <표>, <용아>, <니두아간다>, <쌀엿 잘 만드는 집> 외 다수 연출
- 문학박사

단원 안태훈 정이형 김장준 양동진 이현숙 이솔 최현정 이유진





무대디자인 김현정

Scenic Hyunjung Kim

- 부산대학교 미술학과(가구디자인) 졸업, 브레라 국립미술원 졸업
- 국립오페라단 미술감독 역임, 서경대 공연예술학부 전임대우교수 역임
- 오페라 <아랑>, <지귀>, <사랑의 묘약>, <피가로의 결혼>, 송년 오페라 갈라, <지크프리트의 꿈>, <세빌리아의 이발사>, <투란도트>, <마술피리>, <아이디>, <오텔로>, <토스카>, 연극 <오리사냥>, <연애희곡>, <콜렉션>, <십이야>, <아일랜드>, <화금석>, 국립창극단 <적벽> 등 무대디자인 및 신년음악회, 터키만찬, 전시회 등 참여



영상디자인 장수호

Video Suho Jang

-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예술공학 박사과정
- 오페라 <아이디>, <카르멘>, <라 트라비아타>, <투란도트>,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라 보엠>, <돈 조반니>, <안드레아 세니에>, <피가로의 결혼>, <운명의 힘>, <레드슈즈>,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 <봄봄, 동승>, <한국 오페라 베스트 컬렉션> 등 다수의 오페라 영상디자인
- 전) 송의여자대학교 영상제작과 겸임교수, 홍익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외래교수
- 현) ㈜하이퍼스테이지 대표이사, 중앙대학교 Digital Art & Technology Application 연구원



의상디자이너 이수진

Costumes Sujin Lee

- 오페라 <투란도트>, <아이다>, <오텔로>, <운명의 힘>, <토스카>, <마술피리>, <나비부인>, <라 보엠>, <박쥐>, <라 트라비아타>, <피가로의 결혼>, <리골레토> 등 다수 작품 의상디자이너
- 뮤지컬 <비상>, <비 갠 하늘>, <미싱링크>, <모글리>, <어린 왕자>, <월곡>, <귀신통> 등 다수 의상디자이너
-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맥베드>, <십이야>, <인형의 집>, <벚나무 동산>, <30일의 파라다이스> 등 다수 의상디자이너
- 현) 골무무대의상 대표



분장디자이너 이정수

Hair & Make-up Jungsoo Lee

- 한성대학교 패션예술학과 분장예술학 석사 졸업
- 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에>, <보리스 고두노프>, <라 보엠>, <카르멘>, <마농>, <아이다>, <리골레토>, <피가로의 결혼>, <세비야의 이발사>, <나비부인>, <토스카> 등 다수 분장디자이너
- 전) 중앙대학교 산업교육원 공연연기과 출강
- 현) 메인메이크업 대표



조명디자인 한희수

Lighting Heesu Han

- 오페라 <투란도트>, <상드리옹>, <세빌리아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토스카>, <마술피리> 및 창작 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 등 다수 작업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대미술과 겸임교수



소품디자인 남효준

Prop Hyojune Nam

- 영국 노팅엄트렌트대학 무대디자인 학사졸업
- 영화 "아베바소녀들과 학교괴담: 개교기념일" 미술 소품팀, 영화 "슈가" 미술 소품팀, 연극 "드론" 무대디자인, 오페라 <아이디> 무대디자인 어시스턴트
- 현) 영화, 연극, 오페라 등 무대·소품 디자이너 활동 중



연습지휘 이현민

Assistant Conductor Hyuenmin Lee

- 전남대학교 음악학과 작곡전공 및 동대학원 졸업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관악오케스트라 지휘 석사 졸업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오케스트라 지휘전공 박사과정
- 바트라이엔할 필하모니, 블레저필하모니 모차르테움 잘츠부르크, 밀리터르무지크 잘츠부르크 지휘
-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정기오페라 <파우스트>, 광주시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어시스턴트 지휘, 상설공연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지휘('23,'24), 창작 오페라 <박하사탕> 합창지휘,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7회 정기공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전남대 제4회 정기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부지휘, 무등오페라단 오페라 <리골레토>, 강숙자오페라라인 창작어린이 오페라 <놀부야> 지휘
- 전) 전남대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 강사
- 현) 광주예술중학교 출강



오페라코치 김성근

Opera Coach Seunggeun Kim

- 광주예술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오페라코치전공 졸업
- 런던, 바르샤바, 자카르타, 나가사키, 베르가모, 시라쿠사 등 다수 연주 참여
- 오페라 <투란도트>, <라 보엠>, <토스카>, <나비부인>, <전니 스키키>, <수녀 안젤리카>, <라 트라비아타>, <일 트로바토레>, <운명의 힘>, <리골레토>, <미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카르멘>, <사랑의 묘약>, <신데렐라>, <초인종>, <메리 위도우>, <더 미디움>, <더 텔레폰> 및 다수 창작 오페라 반주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발히 활동 중



조연출 황다인

Assistant Director Dain Hwang



조연출 장재원

Assistant Director Jaewon Jang

프로덕션

production

예술감독	최철
연출	표현진
지휘	마르첼로 모타델리
무대디자인	김현정
영상디자인	장수호
의상디자인	이수진
분장디자인	이정수
조명디자인	한희수
소품디자인	남효준
연습지휘	이현민
오페라코치	김성근
조연출	장재원 황다인
자막오퍼레이터	허성훈
음향오퍼레이터	윤지희
영상오퍼레이터	이지훈
영상 어시스트	박소라 박지현 이어진
조명오퍼레이터	허한
조명팀	이정훈(팀장) 김기웅 한병수 박나경
의상팀	양지은(팀장)
분장팀	임상아(팀장) 정다운 김다현 장재우 이안나 송다빈 이채은
무대진행팀	이아영 원현지 심건수 전진룡 정종극 심지명 곽승윤 김우림 이동원 김태현
소품진행팀	소찬호 공태훈
무대제작	온스테이지
소품제작	하다

오페라단 사무국

예술감독 최철 무대감독 김강준 기획홍보 박승희 강지훈 음악담당 김혜련

광주예술의전당

Gwangju Arts Center

전당장	윤영문
관리운영과	
관리운영과장	박관재
사무팀	하형석(팀장) 김동영 김선빈 최승미 허훈 반채원 김홍량
시설팀	정동훈(팀장) 이강석 송태진 천태 박영우 김영준 이가연 박미선 조민지
청사미화팀	이진이 김훈광 차이화 정인영 박건희 문영미 박현아 심현자 이미옥
청원경찰팀	문진식(조장) 정기삼 김영찬 조현빈 김영우 김현호
공연지원과	
공연지원과장	백홍승
공연기획팀	이경석(팀장) 이가영(담당) 주은혜 김진수 박은수
하우스매니저	노성희 이경민
홍보마케팅팀	모성일(팀장) 김진홍(담당) 한진영 김아연
통합사무국	강송운 이영미 전수진 양세린
무대팀	박성준(팀장) 대극장: 노보연 국윤강 김정호 박열 강동욱 강기웅 조계원 서종현 소극장: 문월승 강재성 이상현 조우원 김이삭 김주성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Foundation for Cultures & Arts

Daegu Opera House

관장	정갑균
공연예술부장	김득주
무대시설부장	강영구
공연기획팀	팀장 최은정 이하나 박선영 최서윤 한규리
국제교류팀	팀장 김민정 박형기 심유진 박새별 강지윤
홍보마케팅팀	팀장 정유경 김유리 백지연 최수민
무대예술팀	팀장 박병달 문길환 차광석 정진섭 김태학 박준환 조원호 김남오 최진영 이남문 조현우
시설관리팀	팀장 이철훈 장성훈 김경도

